



PLAYING
AT
HER TABLE

FERDINANDO
FREGA

그녀의 테이블에서 벌이는 게임

The Art of Attraction · 02

세월이 흘렀다. 그리 많은 세월은 아니었지만.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나의 교실은 체육관이었다. 농구, 배구, 5인제 축구 사이에서, 나는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이 진짜 교실에 들어왔다가 거기 있는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뭘 하는지 걱정했지만, 나는 그저 땀 때문에 마른 옷을 가지러 들어왔을 뿐이었다.

나는 눈에 띄지 않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나에게는 이미 오토바이가 있었다. Laverda 125였다. 나는 옷을 잘 입었고, 어머니의 지갑은 잔돈이 들어 있을 때마다 훌륭하게 쓰였다. 지폐가 온전했다면 나는 결코 손대지 않았을 것이다. 완벽한 덧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아버지의 돈을 꺼내고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어머니의 돈을 꺼냈다. 어쨌든 나는 Frega라는 이름의 소년이었다. 이탈리아어로, 슬쩍 집어 가는 녀석. 아하하하하하.

어느 날 체육관에서 키 크고 날씬한 예쁜 여자아이가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합계를 계산하는 데 회계사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를 보러 오라고 했다. 그녀는 시내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고, 어느 오후 나는 그녀를 만나러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나섰다.

도착해서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 마을에 와 있으니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버티면서 자기 집으로 와서 온 가족을 만나라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 — 개까지 포함해서.

나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그녀는 공격에 나서서 왜 자기 집에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공식 약혼식에 맞는 옷차림이 아니었고, 반지도 챙겨 오지 않았다고.

그녀는 두 달 넘게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매일 같은 질문이었다. 우리 언제 만나? 그리고 매일 같은 대답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제 시간이 나시는지 보자, 네가 인사드릴 수 있게.

그러면 그녀는 이랬다. 왜?

그러면 나는 이랬다. 네가 어머니와 잘 지내는 게 꼭 필요하거든. 가깝게도 휠체어를 타시니까 — 누군가 돌봐 드려야 해.

자기가 걸어 들어가게 될 상황을 깨닫자,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몇 년 뒤 나는 슈퍼마켓에서 그녀와 마주쳤고, 아주 건강한 모습의 어머니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행간을 읽은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어떻게 나으셨는지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즐기세로 치료와 여자들의 마법이라고.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으며, 너는 정말 내 아들이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네 털을 결대로 쓰다듬어 줄 거다, 하고 말했다. 어머니가 모르는 것은, 내가 털갈이를 자주 했고 어머니는 결코 똑같은 나를 두 번 만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Ferdinando